

# 현대 공공공간의 새로운 가능성 고찰

김미영\*

## A Study on the New Possibility of Public Space in Contemporary Cities

Meeyoung Kim\*

**요약 :** 본 연구는 현대 도시 공공공간의 특성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잠재력을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현대 도시의 공공공간은 공공영역과 공공성에 관한 전통적 해석으로만 조망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공공공간이 고전적으로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어온 ‘공통성’과 ‘공론성’을 담보해야 하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 보다 유연하게 해석되어 변화하는 현실 조건과 가치를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공공공간의 잠재력과 새로운 가능성은 첫째, 공사 영역의 경계에 대한 재해석, 둘째,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 셋째, 사적 공간의 공공적 가치와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윤리적 잣대를 넘어서 공공공간이 지닌 현실적인 조건과 변화를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은 다양한 층위의 공공공간을 발견하여 이를 도시계획, 도시설계, 도시디자인 등 도시 관리에서 유연하게 담아내는 기초를 마련하는 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주요어 :** 공공공간, 사적공간, 공론성, 유동성

**Abstract :** This study is an attempt to discover new possibility of public space in contemporary cities. The new modern public space is very complicated and diverse to be viewed only as a traditional interpretation of the public domain and publicity. It is necessary to contain the conditions and values of reality that are changed and interpreted more flexibly and positively beyond the function of the public space, which should be secured with ‘community’ and ‘publicness’ which have been emphasized as classically important values. First, the new possibilities of public space can be found in the reinterpretation of the boundaries of public and private sphere. Second, the autonomy and subjectivity of individuals in the use of the public space is being strengthened. Lately, it is changed the public values of private space. The effort to capture the real conditions and changes of the public space has practical implications to discover the public spaces at various levels and to lay the foundations for flexible urban planning and urban design.

**Key Words :** Public space, Private space, Publicness, Flexibility

### I. 서론

공공공간(public space)은 도시 형태를 구성하는 요소 이면서 동시에 도시 문화를 형성하는 기반이다. 광장, 시장, 거리, 공원 등 공공공간은 물리적 도시환경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축제, 휴식, 만남, 집회 등 도시민의 도시 활동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최근 세계 대도시들은 삶

의 질, 커뮤니티, 도시에 대한 권리, 사람 중심의 도시 등을 중요한 사회 이슈로 삼으면서 공공공간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도시 재생을 통한 공공공간 부흥은 전 세계적 도시현상이기도 하다(Akkar, 2005; 조경진·한소영, 2011).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공간 조성 및 정비 사업이 도시 핵심 프로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Associate Research Fellow, The Seoul Institute, mipre81@gmail.com)

젝트로 대두하고 있다. 서울시의 한강르네상스사업(2006년), 서울광장(2004년), 청계광장(2005년), 광화문 광장(2009년) 등 도심 광장 조성 사업, 디자인 서울(2009년), 세종로 역사문화공간 조성(2015년), 서울역 7017 프로젝트(2016년)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 프로젝트들이 공통적인 비전으로 내세우는 ‘공공성의 확보와 실현’은 논란 속에 있다.<sup>1)</sup> 논란의 중심은 이들 공공공간이 시민들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 물리적 개방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페스티벌, 공연, 행사 등 각종 도시 이벤트를 담아내는 문화 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는가 등이다.

이는 그간 공공공간에 대한 학계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공공공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이론적 영역과 실천적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론적 영역에서는 누가 공간을 이용하고 점유하는가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 곧 공간 이용 주체의 차별과 배제의 문제로 공간의 실질적 주권을 행사하는 권력과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다루는 공간정치 담론이 중심이다(Zukin, 1991; Mitchell, 1995; 1996). 실천적 영역에서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공간에서 요구되는 도시 설계 혹은 공간 디자인의 조건에 대한 분석, 해외 공공공간 사례 연구 등이 주를 이룬다(최성호, 2007; Bullicant, 2007; 임옥상, 2008; 김선영, 2011). 결국 기존 연구들의 출발 혹은 종착은 현대 도시에서 공공공간은 축소 혹은 소멸되고 있으며 그것의 진정성 또한 상실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반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나름의 한계를 갖는다. 공공공간의 본질적인 속성에 접근하지 못하고 전통적·윤리적 규범에 얽매어 실제 현실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대 도시는 신자유주의 확대, 시장영역 확장, 거대한 민간 자본 침투 등으로 인해 분명 과거와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공간의 의미와 가치, 공공공간의 전유 주체 등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규범적 혹은 고전적 해석에 머물러 있는 공공공간 담론에서 벗어나 현대 도시의 공공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재발견과 재해석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본 연구는 실천적 의미에서 현대 공공공간의 다양한 지층을 살펴보고 그것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함에 있다. 이를 위해 현대 공공공간의 쇠퇴 및 소멸 담론에 대하여 검토하고 기존 공공공간 담론의 고착적 인식을 극복할 수 있는 현대 공공공간의 숨겨진 잠재력을

탐색한다. 이는 공공공간과 관련된 이론과 실천의 간극을 극복함으로써 공공공간의 이념적 도그마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 II. 공공공간의 ‘유동성(flexibility)’

공공(公共, public)의 어원은 ‘people’을 뜻하는 라틴어 ‘publicus’로 알려진다. ‘public’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5세기 말경인데, 당시에는 ‘공공의 이익’을 의미하였다. ‘public’이 오늘날과 같은 공중(公衆)이라는 뜻을 내포하게 된 것은 유럽 시민사회를 주도한 부르주아 계급이 자신들의 사생활을 중시하면서부터이다. 부르주아 계급의 경제적 여유는 사적 생활의 여유로 이어졌으며, 개인이나 가족을 중시하는 사적 생활의 강화는 반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서 교류하는 공적인 삶을 규정하기 시작한 것이다(Sennett, 1992).

개인의 상대적 의미인 ‘공공’(public)과 ‘공간’(space)이 합쳐진 공공공간(public space)은 두 가지 차원으로 해석된다. 첫째는 도시의 광장이나 시장과 같이 개방의 정도가 높아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물리적·지리적 공간이다. 일정 정도 이상의 접근성, 연계성, 개방성, 쾌적성 등을 갖춘 열린 공간으로서 사적인 개인들이 하나의 ‘공공’을 형성하고 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Jackson(1984)이 “조성과정에서 사업주체로서 공공부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공공의 권위(authority)에 의해 조성·유지되는 공간으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가능한 곳”이라고 정의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둘째는 공적 관심이나 정치적 이슈에 관한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지는 ‘공적영역’ 혹은 ‘공론장(public sphere)’으로서의 공공공간이다. 이는 물리적·지리적 공간으로서 공공공간을 아우르면서 동시에 사회·문화·경제·정치 등의 이슈가 관통하는 사회적 공간을 뜻한다(Goodshell, 2003; 김준호, 2011). 이에 공적영역은 사회구조나 사회영역 차원에서 논의되는 거시적인 관점,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이론에 대한 논의,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와 실천 행위로 나타나는 공공의식에 관한 논의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한승완 역, 2001). 그리고 이들 논의의 접점은 공적영역의 이상적 상태는 ‘최적의 의사소통’이며 공공영역의 주체는 바로 시민 대중인 것이라는 점이다(고길섭, 2000).

이상의 해석을 바탕으로 공공공간에서 요구되는 특성은 ‘공통성’, ‘공론성’, ‘유동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통성’이란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도 제한 없는 접근성과 이용권, 곧 개방성을 의미한다. ‘공론성’이란 자유로운 표현과 소통, 자율적이고 공개적인 참여와 토론을 강조하는 공개성과 공동성을 뜻한다. 하지만 공공공간을 어디까지 개방할 것이냐, 혹은 어느 정도(대상과 범위)까지 참여가능하게 할 것이냐에 따라 논의의 범주는 달라질 수 있다. 이에 공공공간은 ‘유동성(flexibility)’의 특성을 지닌다. 곧 공공공간은 시대나 사회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다분히 맥락 의존적 성격을 갖는다.<sup>2)</sup>

하지만 현대 공공공간의 ‘진정한 공공성 소멸’이라는 규범적·전통적 해석은 공공공간의 ‘공통성’과 ‘공론성’을 바탕에 두고 있다. 공공공간이 갖는 ‘유동성’은 무시한 채, 마치 공공공간이 선형적으로 주어지고 고정된 것, 보편타당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한다(김준호, 2011). 기존 논의의 주된 관심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 정치적 공론의 장, 민주적 소통공간으로서 공공공간의 성취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공간의 ‘유동성’에 주목해야 할 시기이다. 이는 변화하는 현대 도시의 조건과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공공공간의 본질에 보다 실질적·실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 III. 위기의 공공공간

본 장에서는 현대 공공공간의 위기론을 검토하여 이들 논의의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우선 공간의 소비화로 인한 공공공간의 진정성 상실에 대한 논의이다. 자본주의 도시공간은 자본주의적 소비문화가 반영되는 곳으로 도시 공간의 재편과 재구조화를 통해 자본주의는 자신의 지속적 존속을 꾀한다(최병두, 2002:49-50). 자본주의의 역동성으로 인한 도시 공간 변화는 공공공간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공공공간은 화려한 쇼 윈도우, 스펙터클한 광고 등을 통하여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넘어 공간 그 자체가 직접 소비되는 방식으로 상품화된다(한승원 역, 2001:157). Sorkin(1992)은 공간의 소비를 촉진하는 테마파크화를 ‘공간의 디즈니화(Disneyfying of Space)’로 표현한다(Sorkin, 1992). ‘화려하게 계획되고 디자인된 공간’에서 사람들의 사회적 교류는 제한되고

독특하고 흥미로운 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몰살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Zukin, 1991; Mitchell, 1995).<sup>3)</sup>

사용가치가 아닌 교환가치에 충실한 경관은 공공공간의 사적 자본 침투를 만연화한다. Bianchini(1990)는 이러한 공공공간의 사유화 문제가 현대 부동산 개발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1980년대 도시 재건 사업은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구별을 모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면서 공공이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공간, 곧 ‘사적인 공공공간(private public space)’을 생산함을 지적한다. Minton(2006)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기법,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s) 지정 등 사적자본을 끌어들이는 재개발 방식이 민간 자본이 공공공간을 점유하도록 하는 계획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일례로 영국의 카나리 워프(Canary Wharf) 프로젝트는 공공(Liverpool City Council) 주도로 추진되었으나 개발자에게 34개의 도로에 대하여 250년 동안 개발 및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공공공간의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사적 이용을 촉진하였다.

공공공간의 진정성 상실은 공공 건축물의 무맥락성에 의해서도 야기된다. 현대 건축가, 개발자, 그리고 클라이언트는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발굴하여 건축물에 투영하기 위한 노력 보다는 지역 혹은 국가를 넘어 건축가의 정체성(identity)을 드러내는 건축물을 반복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에 열중한다. 지역적 맥락이 부재한 공공건축물과 표준화되고 획일화된 관리 매뉴얼은 공공장소의 무장소성을 공고화한다(Beck, 1992; Bentley, 1999).

1963년 미국에서 공공 건축물의 미술장식을 위해 등장한 공공미술제도 또한 공공공간의 장소성 상실을 촉진하였다. 공공장소의 미적 장식으로서 공공미술은 공간을 비어있는 공백으로 간주하고 미술을 통해서 의미화되는 피동적 존재로 인지한다. 장소의 특성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공공미술은 ‘고릴라 입술의 립스틱’, ‘광장의 똥덩어리로 비판받기도 한다(Miles, 1997; 박삼철, 2006).<sup>4)</sup>

이 같은 공공공간의 사유화, 소비화와 상업화, 무장소성의 창출 등으로 인한 공공공간의 축소 내지 소멸은 사용자의 배제와 차별, 고립의 문제와 연결된다. 전통적으로 공공공간은 공유지, 곧 누구나 사용가능한 땅이다. 하지만 현대 공공공간에서는 그곳을 사용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내지는 사용자가 그곳에서 어떻게 행동해야하지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기제가 강력하게 작동한

다.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공공에게 적절한 행동과 규범을 강요함으로써 이들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복장 규제, 취객 및 노숙자 출입 통제 등이 그것이다. 겉보기에는 모든 이들을 위해 개방되어 있는 공공 공간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더 큰 제한과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Bianchini, 1990).

Graham and Marvin(1996)은 쇼핑몰과 테마 공원 등의 건설은 소비 공간의 물리적 증가를 가져왔지만 결국 소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을 설명한다(Graham and Marvin, 1996:186). 도시의 핵심 상징경제(Symbolic Economies)로 작동하는 박물관, 미술관 등의 공공공간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입장료를 지불한 사람이 정해진 이용시간에만 입장하도록 통제된다. 뿐만 아니라 공간 내부에서는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합한 행동과 적절한 규범이 강요된다. 미국의 경우, 9·11 테러 이후 안전 및 보안 관리가 강화되면서 공공공간의 접근 규제는 한층 강력해졌다(Ellin, 1996:167; Low and Smith, 2006:82).

현대 공공공간은 “한편으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공간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의 지배에 의해 더욱 더 심각한 억압과 소외의 공간을 변하고 있는 것”(최병두, 2002:28)이다. 곧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은폐’하고, 그러한 공간을 향유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경관에서 ‘계거’하며, 주변의 공간을 상업공간으로 점점 ‘잠식’하고 있다(이무용, 2005:301). Sennett(1992)은 ‘공공공간의 죽음(the Dead of Public Space)’으로부터 ‘사회적 인간의 몰락(the Fall of Public Man)’을 설명한다. 자본주의의 발흥과 포스트모던 디자인은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서 공공공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결국 ‘개인의 사회적 고립’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 IV. 공공공간의 개념전환에 대한 요구

앞서 살펴본 현대 공공공간의 축소 및 소멸 담론은 공공공간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감소, 그리고 의사 소통 및 교류 공간으로서 공공공간의 역할 축소에 대한 비판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공간의 위기론을 수용하기에 앞서 공공·사적 공간의 경계, 공공성의 성취 역사, 공공공간이 지닌 역할의 대체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이는 공공공간의 가치와 의미가 유연

하게 확장되고 유동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첫째,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명확한 경계의 존재와 이분화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다. Zukin(1991)은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이분법을 극복하면서 하나의 연속체(continuum)로서 공간의 의미와 역할을 발견한다. 그녀는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문화와 경제, 시장과 장소 등을 가로지르고 결합하는 공간’으로서 역(閾)공간(liminal space)을 정의하고 이 공간에서의 역치성(liminality)을 강조한다.

역치성은 현 위치를 버리고 다른 위치를 취하기 이전의 중간 상태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지만 어떠한 지침 없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어느 누구의 영역도 아닌 것’이다. 주킨은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 내 상업광고, 지하철역과 연결된 백화점, 자가용으로 점유된 도로 공간 등을 역치성이 드러나는 역공간 사례로 제시한다. 이러한 공간들은 공공공간이지만 사적인 행위를 기반으로 하여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혼성되는 역공간으로서 고유하고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공간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으로 분리하여 사고하는 전통적 이분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으며, 다만 지배적 기능에 따라 영역의 성격을 분류하고 그것의 경계선과 관계망은 사회구성과 주체형성의 맥락에 따라 새롭게 확정하고 구축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길섭, 2000을 참조).

둘째, 현대 공공공간의 위기론에서 이상적 모델로 제시하는 전통적인 공공공간은 실제 헤게모니 영역으로 존재했었다는 점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과거 공공공간은 공공에 의하여 점유되거나 전유된 적이 없었던 레토릭(rhetoric)으로서 기능하였던 것이다. 우리가 흔히 공공공간의 원형(元型)으로 삼는 그리스의 아고라(Agora)와 로마의 포럼(Forum)의 경우, 여성과 노예계급을 제외한 소수 시민에게만 ‘열린 공간이었다.’<sup>5)</sup> 물론 이들의 신체 자체가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노동을 제공하고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만 가능하였으며, 정치적 발화(發話) 기회는 허용되지 않았다(Mitchell, 1995:116). 중세 시대에도 공공성은 부유한 시민사회와 그 구성원들에 한정되었으며, 19세기 자유 시대에도 공중은 ‘교육받은 교양인’이자 재산 소유자층을 의미했다(Hou, 2010; 김준호, 2011). 곧 공공공간은 그 공간이 고안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그곳에 ‘허용되는’ 공중만을 염두하고 있었다. 그곳과 어울리지 않는 신체

를 소유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배타되고 배격되었던 것이다(Mitchell, 1995).

셋째, 대체 가능한 공공공간의 등장이다. 일례로 디지털 시대의 도래, 특히 인터넷의 등장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탈중심화된 가상공간(virtual space)을 출현시켰고 이는 대중들의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확장시켰다. 인터넷은 거미줄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연결하여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전달자와 그 내용을 차별없이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수신자들이 꾸며 가는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가능하다. 곧 인터넷 기반의 가상공간은 공개적인 공동 공간, 곧 공론장으로서 기능한다(박창호, 2004).

실제로 인터넷을 통한 시위 및 혁명 중계가 세계적 연대를 이끈 사례는 다수 있다. 2001년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반정부 운동,<sup>6)</sup> 2007년 중국 샤먼의 대규모 화학공장 반대운동<sup>7)</sup> 등이 인터넷을 통해 지지를 받았고, 이란, 이집트 등의 반정부 시위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을 통해 확산되었다. 대한민국에서도 2016~17년 겨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발한 촛불시위는 블로그와 인터넷 방송과 같은 1인 미디어의 힘이 강력하게 작동하였다.

무엇보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확장은 이동 중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여 시위 중 연결성(communicability)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권력이나 자본의 통제 가능성을 낮춘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형성되는 가상공간은 전통적 공공공간의 물질적 공론장으로서 역할을 대체하여 'Smart Mobs'가 이끄는 가상의 공론장 역할을 수행함을 부인할 수 없다(정연정, 2004; Hou, 2010).

## V. 현대 공공공간의 잠재력과 새로운 가능성

공공공간의 위기담론과 이에 대한 교정 요구 담론의 검토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공공공간은 광장, 시장, 도로 등 정치적 공론의 장, 민주적인 소통의 장으로서 고전적 공공공간의 의미에 집중하여왔다. 또한 공간 자체의 심미적, 윤리적 측면에 충실하여 이용하는 행위자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늘 변화하며 도시공간도 이러한 변화를 역동

적으로 수용하며 변모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공공공간에 대한 관점을 확장하고, 이론과 규범, 그리고 현실과 실천 사이의 간극을 극복해야할 것이다. 공·사 영역의 공간 경계가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경계보다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용자의 활동과 행위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인식과 해석이 요구된다.

우선 공공공간의 확장 가능성은 공·사 공간의 경계 지점의 적극적인 해석에 있다. 앞서 살펴본 Zukin(1991)의 역공간(Liminal Space), 곧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의 경계가 허물어진 지점에서의 새로운 공공공간으로서 가능성이다. 뉴욕의 대표적 공공 공원인 유니언 스퀘어(Union Square)는 1980년 이후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방식으로 개발되어 운영의 사유화가 이루어졌다. 공·사 영역의 경계에 존재하고 있지만 주말마다 친환경 농산품이 거래되는 그린마켓이 열리고, 고급 레스토랑 등 상업 공간에서의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등 공공을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이용되고 있다. 기업 소유의 베를린 소니플라자(Sony Plaza)의 경우에도 아케이드와 유개보행로 등 반사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이곳에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공공성을 끌어들이고 있다.

체험하는 입장에서는 공·사 경계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영역 구분의 무의미함을 뒷받침한다. 공원 등 어메니티 공간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영주체보다는 일상적인 공간으로서 얼마만큼의 어메니티를 제공하며 자신들이 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가 더욱 중요한 문제로 인식한다(조경진·한소영, 2011). 따라서 민간의 개입은 공간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공공공간의 패러독스(paradox)를 인정하고 공공이 운영하면 공적인 가치를 대변하고 민간이 운영하면 사적인 가치를 대변하리라는 편견의 극복이 필요하다(Zukin, 2010).

두 번째는 공공공간은 주어진 혹은 제시된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중 주체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재구성된다는 점이다. 이용자의 개별성과 주체성에 의해 공간이 새롭게 전유되어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의 의도하지 않은 공공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지하여야 한다. 이는 사람들의 공공공간에 대한 기대가 개인, 문화, 사회마다 상이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공공은 '개 개인의 합계(the public as an aggregate of individuals)'가 아니므로 공공공간 역시 '공동의 공간(collective space)'으로 해석되어 집합적 속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

Light and Smith(1998)는 실제 미국 사람들은 낮선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공공장소에서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였다.

Banerjee(2001)도 개개인의 이용자는 집합적, 교육적, 정치적 공간이 아닌 즐거움을 주는 공공공간, 곧 쉼(relaxation), 사회적 관계(social contact), 즐거움(entertainment), 좋은 시간 갖기(simply having a good time) 등의 기능을 중시하면서 '산보객'으로서 공공의 삶(a public life of Flanerie)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세르토(Michel de Certeau) 또한 「일상 생활의 실천(The Practice of Everyday Life)」에서 「도시 속에서 걷기, 일상생활의 실천」을 강조하였다(Certeau, 1984). 도시를 구성하는 구성체들의 움직임과 이를 통한 공간적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광장, 카페, 공원 등 도시인의 일상 공간에서 이용자의 활동과 행위에 주목해야하는 이유이다.

실제 심미적, 윤리적 성격과 일정한 경계로 구분된 폐쇄성이 강조되던 과거 공공공간은 개방된 형태로 이용자의 주체적인 전유행위를 통하여 재탄생되고 있다. 계획가에 의하여 설계된 공간에서 벗어나 이용자에 의해서 자유롭게 '찾아진 공간(founded spaces)', 곧 계획가, 디자이너, 관리자, 심지어 이용자들도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다양한 놀이 형태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 계획가에 의해 디자인된 공간, 공공의 행위가 유도된 공간에서 활동과 외형적으로 크게 구분되지는 않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기원과 다양성, 내용과 성격은 크게 다르다(Franck, 2006; Stevens, 2007).

Hou(2010)는 기존의 관습적이고 전통적인 개념의 공공공간에서 벗어난 반란의 공간(insurgent public space)에 주목하여 휴식, 점거, 상거래 행위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점유된 광장, 가로, 커뮤니티 가든 등의 자생적 탄생에 주목한다. 일례로 홍콩 HSBC의 1층 필로티는 평일에는 도시민의 이동공간에 불과하지만 일요일은 한시적으로 필리핀 취업여성들의 커뮤니티 모임장소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공공공간 질서가 분리되고 전환하고 재통합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라이든(M. Lydon)과 가르시아(A. Garcia)가 제시하는 이른바 '전략적 어바니즘(Tactical Urbanism)' 혹은 '게릴라 어바니즘(Guerrilla Urbanism)'의 개념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도시 내 공원이나 주차장과 같은 주어진 공공공간이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에 의해 팝업 카페, 캠핑장, 게릴라 공원 등으로 재구성되면서 공간의 전유가 적

극적으로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이다(Lydon and Garcia, 2015).

마지막으로 주목해야할 것은 사적영역인 상업공간의 공공공간으로서 역할이다. 현대 공공공간의 상업 활성화는 상품화된 스펙터클을 생산하고 통제와 감시 등으로 인하여 공공공간의 진정성이 상실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결합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카페와 같은 상업적 공간은 공공의 거리를 점유하여 가로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로(boulevard)와 같은 공공공간에서 사람과 상품이 자유롭게 순환하도록 하여 공공영역과 사적영역의 긴밀한 공생을 유도한다(조경진·한소영, 2011).

군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결합하는 공간이 아니라도 카페, 바, 레스토랑 등 상업공간 그 자체도 'Hospitable Space'로서 도시의 문화 기반시설(cultural infrastructure)로서 기능하기도 한다. 소비를 촉진할 뿐 아니라 도시민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하고 사람들을 중재하는 장소로서 도시의 새로운 촉매제로 작용하는 것이다(Lashley, 2000; Lantham, 2003; Bell, 2007). 특히 카페는 점주, 고용인, 손님 간의 가벼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비공식적 친밀성(intimacy)을 생산한다. 공간이 카푸치노를 매개로 길들여지고 익숙하게 됨으로써(Domestication by Cappuccino, Cappuccino Culture) 이용자는 심리적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Atkinson, 2003; Anderson, 2004; Thrift, 2005).

오늘날 공공공간을 포함한 현대 도시공간이 과거에 비하여 이미지 중심으로 스펙터클화되고 소비 공간화되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변화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단지 비판과 한탄의 입장에서 견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스펙터클 장에서의 새로운 자극은 사람들 사이에 예상치 못한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도시문화를 창출할 뿐 아니라 일종의 공공성 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더 이상 사적영역은 공적영역과 대립하는 배타적 범주가 아니다.

## VI. 결론

본 연구는 이념적 혹은 윤리적 접근에 치우친 현대 공공공간의 위기에 대한 비판과 재해석을 통해서 보다 확장되고 유연한 사고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

을 요구한다. 전통적으로 공공공간의 본연적 기능으로 강조되어온 공통성과 공론성을 넘어 현실의 조건과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실천적 차원에서 그것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공간은 이미 만들어지고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실질적인 실체이기 때문이다.

현대 공공공간의 축소와 소멸에 대한 논의는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유형의 공공공간을 발견하고 이용자에 의한 변화의 힘을 찾아내는 진취적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현대 공공공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은 첫째, 공공영역과 사적영역 사이의 경계에 대한 재해석, 둘째, 공공공간을 이용하는 개인의 자율성과 주체성, 셋째, 사적공간이 담지하고 있는 공공적 가치와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윤리적 잣대를 넘어 공공공간이 지닌 현실적인 조건과 변화를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은 현대 도시에서 실존하고 있는 다양한 층위의 공공공간을 발견하는 이론적 의의 뿐 아니라 도시계획, 도시설계, 도시디자인 등에 있어 공공공간에 대한 보다 유연하고 진취적인 해석의 기초를 마련하는 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사실 유교적 전통에 충실해왔던 한국 사회에서 공공공간,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거의 부재하였고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도 상당부분 외국 문헌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향후 한국적 맥락에서 공공성과 공공공간의 의미, 그리고 실천적 차원에서의 공공공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註

- 1) 이와 관련하여 주요 일간지에서 눈여겨볼만한 기사 및 사설 제목은 다음과 같다. “소통 강조하면서 서울광장 개방은 거부하다니”(경향신문, 2010년 9월 19일자), “서울광장은 1000만 시민의 평화공간이다”(동아일보, 2010년 7월 6일자), “서울시, 한강공공성 회복 선언, 내실·집행력 갖춰야”(문화일보, 2009년 1월 20일자), “李시장, 서울광장을 시위專用 마당으로 만들지 말라”(문화일보, 2011년 11월 10일자), “광장의 열기, 의회가 수렴하라”(서울신문, 2009년 6월 1일자), “광화문광장과 도시마케팅”(조선일보, 2009년 12월 31일자), “점령시위, 좌파단체들 데모판 열어줄라”(조선일보, 2011년 10월 13일자),

- “서울광장을 열어라”(한겨레, 2009년 5월 26일자), “‘슈즈트리’에 이어길 이름 까지... ‘서울로 7017’ 잇단 논란”(동아일보, 2017년 5월 18일자).
- 2) 공간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생산물이다. 공간은 안정적인 성격을 지니는 장소와 달리 여러 요소들이 상호교차하면서 나름의 방향성과 상황을 지닌다. 곧 특정 물리적 지점에 하나의 위상만을 갖는 장소와 달리 공간은 상황과 맥락에 의해 변형된다.
- 3) Zukin(1995)은 “도시의 문화는 다양한 계층, 인종의 삶의 방식이며 그 이미지다. 따라서 도시의 공공공간은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에서 브랜드 이미지는 더욱 효과적으로 사적 이익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주킨은 이를 상징경제(Symbolic Economies)라 말한다. 박물관, 미술관, 공원, 역사 유적 등 공공공간은 도시의 강력한 상징경제로 작용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더욱 높은 수익을 올린다. 그녀는 특히 상징경제의 아이콘인 박물관의 변화에 주목하는데 1980년대 이래 박물관은 시장경제의 희생양이 되었고 정부 예산절감과 기업 보조금 축소가 박물관의 디즈니랜드화를 촉발하였음을 지적한다(Zukin, 1995).
- 4) 2017년 5월 개장한 서울역 고가공원 서울로 7017에 설치된 공공조형물 ‘슈즈트리’의 흥물 논란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 5) ‘아고라’는 ‘만나다’는 뜻의 그리스어 동사 ‘ageirein’에서 파생된 말로 정치집회와 토론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반면, ‘포럼’은 남북 방향의 주종축도인 카르도(cardo)와 동서방향의 주횡축도인 데쿠마누스(decumanus)가 만나는 교차점에 조성된 사각형 공간을 뜻하는 것으로 초기에는 시장의 기능이 강조되었으나 차츰 정치와 종교를 위한 공간으로 변화하였다(장택수 등 역, 2009:31, 39).
- 6) 사파티스타 운동은 1994년 1월 멕시코 치아파스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기하며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이라는 무장봉기 세력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사파티스타 운동은 인터넷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지구 시민사회에 전달함과 동시에 국제적 연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 7) 푸젠성의 해안도시 샤먼에 초대형 석유화학공장의 건립이 발표되자, 네티즌 주동으로 이에 반대하는

가두시위가 벌어져 결국 석유화학 공장은 다른 곳에 이전·건설되었다.

- 8) 발터 벤야민이 그의 저서 '아케이드 프로젝트(Das Passagen-Werk)'에서 아케이드와 함께 사용한 '산책자(flaneur)'라는 개념은 파리의 거리를 어슬렁 어슬렁 배회하는 사람들을 묘사한 벤야민의 고유한 표현이다. 19세기의 파리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시공간으로서, 벤야민은 초기 자본주의에서 생산의 측면보다는 소비의 측면을 유심히 관찰하였다. 거리 소원도에 의미하게 비쳐지는 상품들을 구경하는 산책자들을 통해서 벤야민은 자본주의의 속성을 읽어냈다(조형준 역, 2005).

### 참고문헌

고길섭, 2000, "사회운동의 새로운 가로지르기: 공공영역과 공공성의 정치," *문화과학*, 23, 32-60.

김선영, 2011, "공공공간 디자인 요소의 중요도와 이용자 디자인 만족도," *한국디자인포럼*, 32, 61-70.

김준호, 2011, "소수자와 도시: 공공공간에 대한 소수자의 권리를 위한 시론-거리노숙인의 '도시에 대한 권리'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36, 35-65.

박삼철, 2006, 「왜 공공미술인가」, 서울: 학고재.

박창호, 2004,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공공영역의 쇠퇴인가 부활인가?," *사회이론*, 25, 117-142.

이무용, 2005, 「공간의 문화정치학」, 서울: 논형.

임옥상, 2008, "공공디자인이란 무엇인가?-공공디자인과 지속가능한 공간환경 만들기," *건축과 사회*, 11, 43-51.

장택수·김란수·신성희·이화순·지승은·전영선, 2009, 「광장」, 서울: 생각의 나무.

정연정, 2004, "영리한 군중(Smart Mobs)의 등장과 디지털 정치 참여," *한국국제정치학회지*, 44(2), 237-259.

조경진·한소영, 2011, "역공간(Liminal Space) 개념으로 해석한 현대도시 공공공간의 혼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9(4), 49-59.

조형준 역, 2005, 「아케이드 프로젝트」, 서울: 새물결.

최병두, 2002, 「근대적 공간의 한계」, 서울: 삼인.

최성호, 2007, "도시 공공공간 디자인을 위한 체계적 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3(4), 441-453.

한승완 역, 2001, 「공론장의 구조변동」, 서울: 나남.

Akkar, M., 2005, The changing 'publicness' of contemporary public spaces: A case study of the Grey's Monument Area, Newcastle upon Tyne, *Urban Design International*, 10(2), 95-113.

Anderson, E., 2004. The cosmopolitan canopy,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595, 14-31.

Atkinson, R., 2003, Domestication by cappuccino or a revenge on urban space? Control and empowerment in the management of public spaces, *Urban Studies*, 40, 1829-1843.

Banerjee, T., 2001, The future of public space: Beyond invented streets and reinvented places, *APA Journal*, 67(1), 9-24.

Beck, U., 1992, *Risk Society: Toward a New Modernity*, London: Sage.

Bell, D., 2007, The hospitable city: Social relations in commercial spac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1(1), 7-22.

Bentley, I., 1999, *Urban Transformation: Power, People and Urban Design*, London: Routledge.

Bianchini, F., 1990, The crisis of urban public social life in Britain: Origins of the problem and possible responses, *Planning Practice and Research*, 5(2), 4-8.

Bullicant, L., 2007, Activating nature: The magic realism of contemporary landscape architecture in Europe, *Architecture Design*, 77(2), 76-87.

Certeau, M., 1984,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Ellin, N., 1996, *Postmodern Urbanism*, Cambridge: Blackwell.

Franck, K.A. and Stevens, Q., 2006, *Loose Space: Possibility and Diversity in Urban Life*, London: Routledge.

Goodsell, C.T., 2003, The concept of public space and its domestic manifestations,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3(4), 361-383.

Graham, S. and Marvin, S., 1996, *Telecommunications and the City: Electronic Spaces, Urban Places*,

- New York: Routledge.
- Hou, J., 2010, *Insurgent Public Space: Guerrilla Urbanism and Remaking of Contemporary Cities*, London: Routledge.
- Jackson, J.B., 1984, The origin of parks, in *Discovering the Vernacular Landscap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26-130.
- Lashley, C., 2000, Towards a theoretical understandings, in Lashley, C. and Morrison, A., eds., *In Search of Hospitality: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Debates*, Oxford: Butterworth Heinemann, 1-17.
- Latham, A., 2003, Urbanity, lifestyle and making sense of the new urban cultural economy: Notes from Auckland New Zealand, *Urban Studies*, 40, 1699-1724.
- Light, A. and Smith, J.M. eds., 1998, *Philosophy and Geography II: The Production of Public Space*, Lanham: Rowman & Littlefield.
- Low, S. and Smith, N., eds., 2006, *The Politics of Public Space*, New York: Routledge.
- Lydon, M. and Garcia, A., 2015, *Tactical Urbanism: Short-term Action for Long-term Change*, Washington D.C.: Island Press.
- Miles, M., 1997, *Art, Space and the City*, New York: Routledge.
- Minton, A., 2006, *What Kind of World Are We Building? The Privatisation of Public Space*, London: RICS.
- Mitchell, D., 1995, The end of public space? People's park, definitions of the public, and democracy,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5(1), 108-133.
- Mitchell, D., 1996, Introduction: Public space and the city, *Urban Geography*, 17, 127-131.
- Sennett, R., 1992, *The Fall of Public Man*, New York: W.W. Norton.
- Sorkin, M., ed., 1992, *Variations on a Theme Park: The New American City and the End of Public Space*, New York: Hill and Wang.
- Stevens, Q., 2007, *The Ludic City: Exploring the Potential of Public Spaces*, New York: Routledge.
- Thrift, N., 2005, But malice aforethought: Cities and the natural history of hated,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0, 133-150.
- Zukin, S., 1991, *Landscapes of Power: From Detroit to Disney World*,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Zukin, S., 1995, *The Cultures of Cities*, Cambridge, MA: Blackwell Publishers.
- Zukin, S., 2010, *Naked City: The Death and Life of Authentic Urban Plac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경향신문, 2010년 9월 19일자, “소통 강조하면서 서울광장 개방은 거부하다니”
- 동아일보, 2010년 7월 6일자, “서울광장은 1000만 시민의 평화공간이다”
- 동아일보, 2017년 5월 18일자, “‘슈즈트리’에 이어길 이름까지... ‘서울로 7017’ 잇단 논란”
- 문화일보, 2009년 1월 20일자, “한강공공성회복 선언, 내실·집행력 갖춰야”
- 문화일보, 2011년 11월 10일자, “주시장, 서울광장을 시위 專用 마당으로 만들지 말라”
- 서울신문, 2009년 6월 1일자, “광장의 열기, 의회가 수렴하라”
- 조선일보, 2009년 12월 31일자, “광화문광장과 도시마케팅”
- 조선일보, 2011년 10월 13일자, “점령시위, 좌파단체들 데모판 열어줄라”
- 한겨레, 2009년 5월 26일자, “서울광장을 열어야”
- 교신 : 김미영,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서울연구원 (이메일: mipre81@gmail.com)
- Correspondence: Meeyoung Kim, 06756, 57 Nambusunhwan-ro 340 gil, Seocho-gu, Seoul, Korea, The Seoul Institute (Email: mipre81@gmail.com)
- 투 고 일: 2017년 10월 23일  
 심사완료일: 2017년 11월 8일  
 투고확정일: 2017년 11월 30일

